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를 위한
평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Leave no one behind”

2015년 9월 25일,
193개 유엔 회원국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54년 설립 이래로
교육, 과학,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국 교육 지원을 위한
후원개발 사업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를 위한 평화

목차

02	배움일기1
	구다-인도 시타푸르 지역학습센터 학습자
04	감사의 글
06	기관 소개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 분야
10	배움일기2
	에다-말라위 나피니 성인문해교실 학습자
12	기금 보고
	수입 보고 지출 보고
15	배움일기3
	모로바-보츠와나 마오마테 지역학습센터 교사
16	성과 보고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 브릿지 아시아 사업 유네스코 문화 지원 사업 지구촌 교육나눔 현장 보고
34	함께 해 주신 분들
	2018 후원자 명단 2018 신규 후원자 가입 한마디 2018 후원자의 밤
42	자주 하는 질문
43	유네스코 현장
44	2030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겨우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뿐인데,
내 세상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구디의 일기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학습센터 선생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도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수업을 들으러 센터에 나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공부는 무슨 공부냐며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흘러보낸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꾸만 되돌아와 머릿속을 떠다녔다. 그날은 설거지하며, 빨래를 개며 온종일 그 목소리를 지워야 했다.

사실 두려웠다. 열한 식구 챙기기도 버거운 내가 공부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지 겁났다. 언저리 남편에게 학습센터 이야기를 건넸지만 돌아온 건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날 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유인물을 들여다보았다.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삶을 내주려면 내 삶부터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렵게, 아주 어렵게 센터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나는 빠른 학습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더딘 편이었다. 학급 동료들이 몇몇 단어를 쓰고 간단한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즈음 나는 겨우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비웃을지 모르지만 펜 잡는 법도 모르던 내가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건 기적과도 같았다. 벅찬 마음으로 종이 위에 푹푹 눌러쓴 내 이름을 한참이고 들여다보았다. 겨우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뿐인데 내 세상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남편과 방문한 동사무소에서 서류에 지장 대신 이름을 적어 서명할 수 있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에 작은 균열이 갔음을 느꼈다. 용기가 났다.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큰아들에게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남편에게도 글자를 가르쳐주고 싶어졌다. 나는 여전히 집안일에 허덕인다. 요리를 하다 자주 수업에 늦고, 아이들을 돌보다 복습을 건너뛰기 일쑤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집안일에 학업까지 병행하다 보면 녹초가 되지 않고 잠드는 날이 손에 꼽힌다. 그러나 학습센터에서 보내는 3시간은 매일 내 삶을 새롭게 칠하고 있다.

나의 세상이, 아이들의 세상이, 우리 가족의 세상이 색을 바꾸고 있다. 나는 그 세상을 더욱 다채로운 빛깔로 채우고 싶다.

— 구디 (인도 시타푸르 지역학습센터 학습자 /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

감사의 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 속담

앞장에 소개된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 학습자 구디의 일기를 읽어보셨나요?

‘공부하러 오라’는 학습센터 선생님의 말이 온종일 구디의 귀를 맴돕니다. 열 한 식구 챙기기도 벅거운 아홉 명 아이의 엄마 구디는 그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유인물을 한 글자도 읽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학습센터를 다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겨우 이름을 쓸 수 있게 된 것뿐인데 내 세상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고.

글을 알기 전과 후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1% 이하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전 세계에 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 인구는 7억 5천만 명에 이르며, 2억 5천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문해는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문해력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는 개개인에게 힘을 불어넣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생계를 향상시키며 국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분투 정신의 핵심이자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말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위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며 함께 걸어가 주신 후원자님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드림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20세기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또다시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도록 지구상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설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사명은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창설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 헌장」 채택일)

소재지

프랑스 파리

기능과 역할

-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아이디어 실험실 기능; 혁신적 제안 및 정책 자문 제공
-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정책 분석, 모니터링, 벤치마킹을 통한 글로벌 의제 개발 및 강화
- 유네스코 전문분야에서
규범 및 기준 설정; 규범 및 기준 이행 지원 및 모니터링
- 정책 개발 및 이행; 제도적 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자문 제공

회원국

193개 정회원국 및 11개 준회원국 (2019년 1월 기준)



© unesco_Fabrice GENTILE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 <유네스코 헌장> 중에서



유네스코의 로고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한 것으로,
유네스코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 과학, 문화를 상징합니다.
신전의 여섯 기둥은 유네스코의 영문 철자 여섯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14일에 유네스코에 가입,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가입 직후 벌어진 한국전쟁 중에도 정부는 유네스코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가위원회 설립을 추진했고, 마침내 195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유네스코, 대한민국 정부, 국내외 유네스코 기관 및 단체 간 연계와 협력,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설

1954년 1월 30일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

설립 근거

「유네스코 헌장」 제7조(국가위원회 설립 요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목표

교육·과학·문화 등 유네스코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

기능과 역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 진작
- 유네스코 활동 관련 정책 수립,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사·심의와 건의
- 유네스코 총회 의안의 작성,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건의
- 유네스코 활동의 국내 이행에 관한 심의와 건의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 및 사업 수행, 조정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분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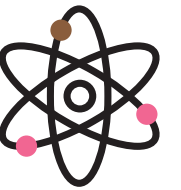
인간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권 실현을 목표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교육 2030(지속가능발전 4번 목표)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물, 해양, 생물다양성, 과학정책, 윤리, 청년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국제/정부 간 과학 사업 •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및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지질공원 • 생명윤리와 과학기술윤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량 강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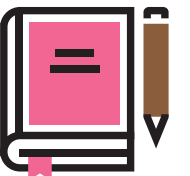
인류의 소중한 문화의 계승과 보전을 위해 최신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 포럼, 훈련 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와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세계유산 • 무형유산 • 세계기록유산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 문화분야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 소외계층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강화, 공개 교육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함양 및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 언어 다양성 증진
- 지식사회 구축을 위한 공개교육자원 활용 촉진 • 커뮤니케이션 분야 네트워크 협력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반세기 만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 발전의 노하우를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문해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 •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사업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교류 협력 • 후원개발

에다의 일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글을 읽지 못했다. 버스정류장에서는 노선도가 안내되어 있어도 글을 읽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봐야 했고, 휴대전화에 전화가 오면 발신인이 누구인지 읽어달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부탁하지만, 그때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나는 여섯 아이의 엄마가 된 3년 전에서야 드디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학비를 낼 수 없어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마을에 나피니 지역 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 CLC)가 생기면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나피니 지역 학습센터에 다니면서 치체와(Chichewa)어를 배웠고, 이제 막 정규과정을 마쳤다. 다음 주부터는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데 벌써 기대가 되고 설렌다.

글을 배우고 가장 좋은 점은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이제 사람들에게 버스 노선을 묻지 않아도 되고, 혼자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성경책과 찬송가 가사도 읽을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지니 더 이상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것이 내가 계속 공부하고 싶은 이유이다.

— 에다(나피니 지역 학습센터 성인문해교실 학습자 /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글을 배우고 가장 좋은 점은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비형식중학교교육을 통해 공부 중인 학생들, 브릿지 미얀마 프로젝트

“한 명의 어린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한 개의 연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말랄라 유사프자이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20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금 수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사업비는 크게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정부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일반 후원금은 개인과 일반 단체 및 기업, 학교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정 후원금은 기업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금입니다.

• 월별 수입 후원금 (일반 후원금, 지정 후원금)

금액 단위: 원

월별	금액	월별	금액	월별	금액
1월	56,747,294	5월	63,964,388	9월	76,427,739
2월	78,267,739	6월	55,970,429	10월	54,051,169
3월	52,731,099	7월	54,282,229	11월	57,299,769
4월	52,416,789	8월	54,212,899	12월	125,095,618
합계	781,467,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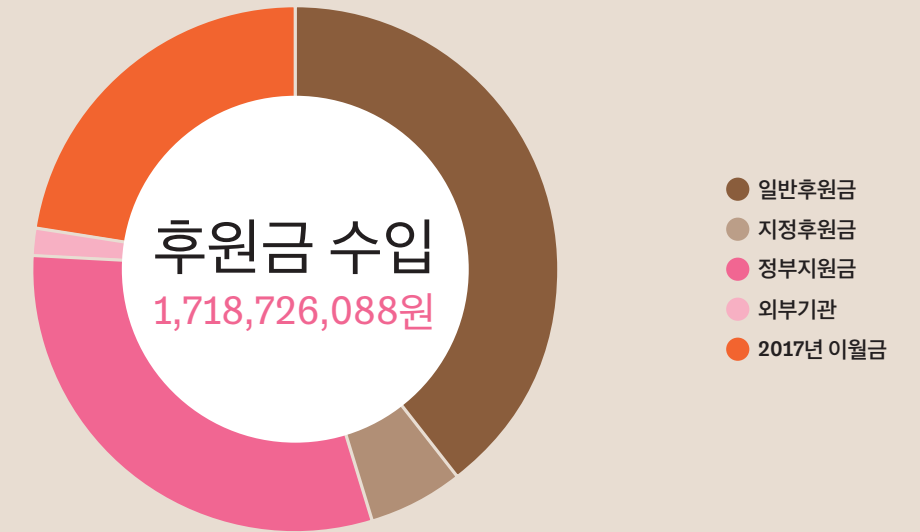
금액 단위: 원



“모든 여성이 초등교육을 받으면
9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현황보고서 -

• 재원별 수입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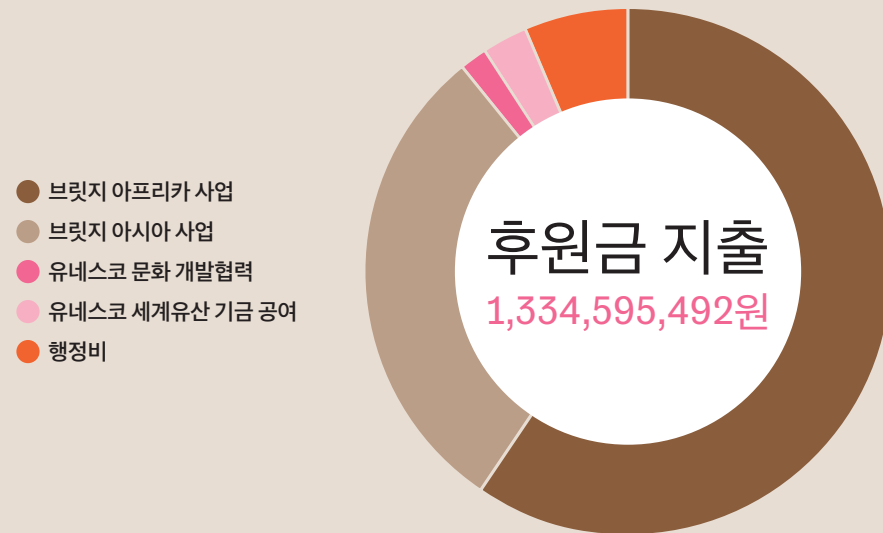
금액 단위: 원

재원 구분	세부 구분	금액
일반후원금	개인	574,567,794
	기업/단체(희망나눔가게)	35,646,828
	학교	71,252,539
지정후원금	기업	100,000,000
정부지원금	교육부	522,000,000
외부기관	KOICA	33,022,000
2017년도 이월금		381,892,621
기타(이자수입)		344,306
합계		1,718,726,088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20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금 지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지구촌 교육나눔 및 문화 지원 사업을 위해 쓰였습니다.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 후원금은 아시아 6개국(네팔, 미얀마,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과 아프리카 6개국(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의 지역학습센터 구축과 문해 교육, 생활기술교육, 교사 연수와 교재개발 및 보급을 위해 쓰였으며, 지정 후원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금 공여와 유네스코 문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금액 단위: 원

사업명	재원			당해년도 집행 금액	차기이월	총계
	후원금	정부(교육부)	KOICA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	350,061,313	410,000,000	36,741,190	796,802,503	126,563,795	923,366,298
브릿지 아시아 사업	282,122,937	112,000,000		394,122,937	133,990,588	528,113,525
유네스코 문화 개발협력	18,355,124			18,355,124	25,657,869	44,012,993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금 공여	37,987,122			37,987,122		37,987,122
행정비	87,327,806			87,327,806	97,918,344	185,246,150
합계	775,854,302	522,000,000	36,741,190	1,334,595,492	384,130,596	1,718,726,088

모로바의 일기



내가 처음 마오타테 마을에 왔을 때였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X 표시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알고 보니, 보츠와나에서는 글자를 모르면 자기 이름 대신 X 표시를 한다고 했다. 내가 마을발전위원회 소속이 된 후, 마을을 둘러보니 교육을 받을 만한 마땅한 곳이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마을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뿐이었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마오타테 마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관공서에 찾아가서 우리 마을에 성인 문해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했다.

내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마오타테 마을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내가 처음 왔을 때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

그중 나를 가장 미소 짓게 하는 큰 변화는,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어른들은 더 이상 X 표시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적어 서명한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마을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마을은 많이 달라졌다. 물탱크와 이동식 화장실이 생겨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졌고, 이전보다 조금 더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만 같다.

— 모로바(마오타테 지역학습센터 교사 / 브릿지 보츠와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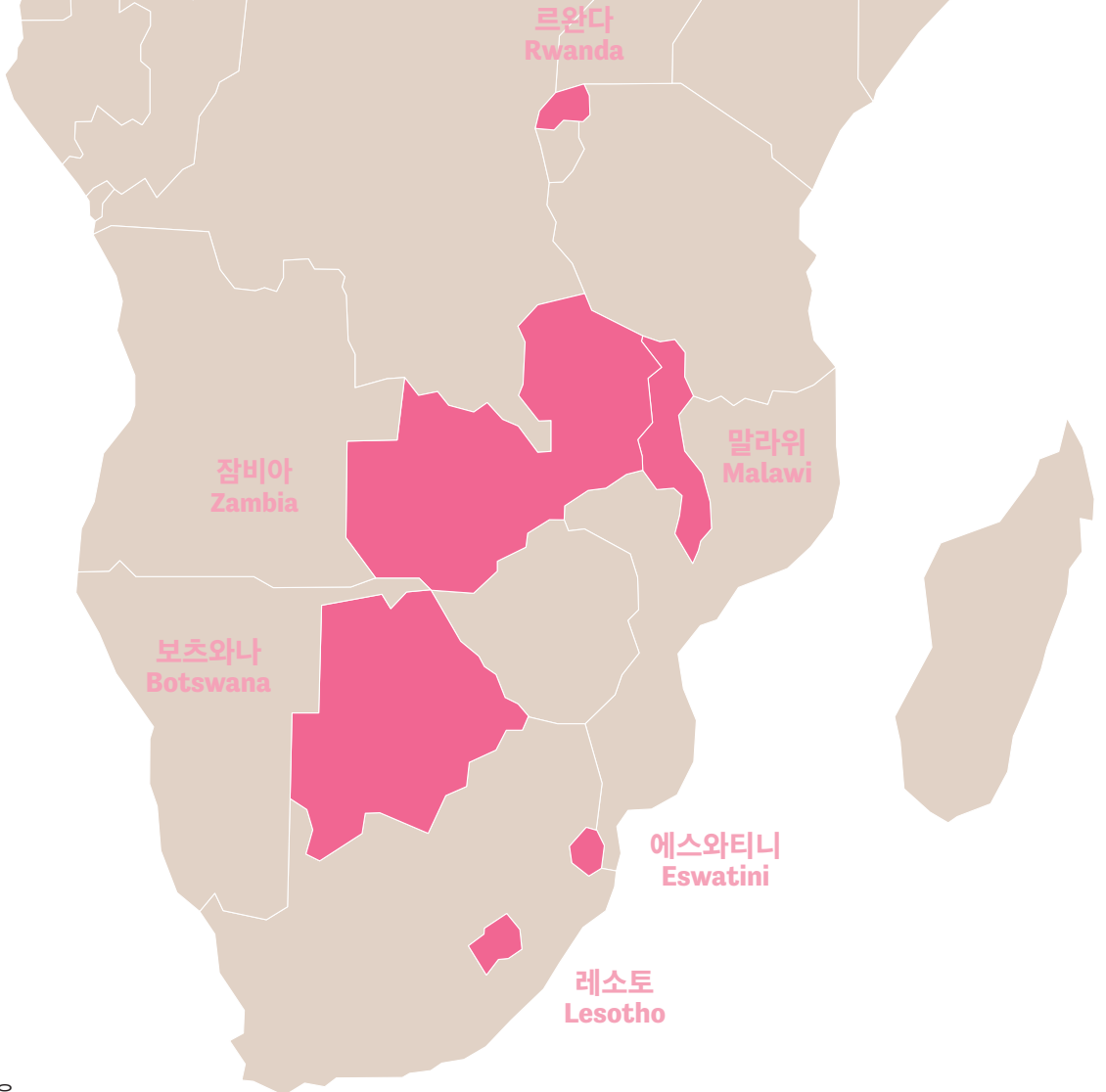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입니다. 그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성인문해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이유로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 없는 소외된 외곽 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전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대상 국가: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잠비아



• 사업 연혁 •

2009	사업 타당성 연구(유네스코 청년지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2010~2012	시범 사업(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실시 (남아공,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 청년활동가 18명 파견 • 한위-KOICA-삼성전자 민관협력 사업
2013~2015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으로 개편-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으로 사업 목표 정립 (남아공,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 국가별 프로젝트 매니저 시범 파견 실시 • 교육부 ODA 협력 사업 • 한위 후원금 모금을 통한 사업 확대
2016	대한민국-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교육개발협력 사업으로 도약- 파트너 국가위원회와 사업 협력을 위한 '릴롱게 커뮤니티' 채택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잠비아, 에스와티니) • 범정부 브릿지 국별위원회(BNC) 설립 운영 • 프로젝트 매니저의 수원국 정부 상주 파견
2017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잠비아, 에스와티니)
2018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보츠와나, 잠비아, 에스와티니)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학교가 없는 교육소외지역에 배움의 기쁨을 전합니다!

12km를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던 보츠와나의 마오마테 마을 주민들, 이제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어진 지역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현지 학교 교육이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교육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문해교실 마련, 교사 역량 강화, 교재 개발 및 보급에 힘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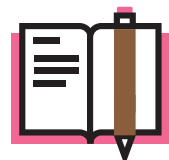
학습자 (교육 수혜자)
1,799명



교사 역량강화
172명



지역학습센터 건축 및 운영
14개소



교재 보급/개발
7,614부/3건

BRIDGE AFRICA

레소토 Kingdom of Lesotho



- 인구: 약 220만 명
- 1인당 GDP: 1,210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76.64%
남: 67.75%, 여: 84.93%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 사업명: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기초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해-직업기술 역량강화 사업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3개소 학습자: 196명

레소토 외곽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인 하무추, 하메고, 디피링 마을에는 공교육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에서 소외된 마을 주민을 위하여 세 마을에 지역 학습센터를 짓고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재봉 및 가죽공예)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을 중시하는 현지 상황에 맞춰 놀이터 및 수도 시설을 구축하고 현대그린푸드의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영유아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국가 문해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비형식교육센터 교사 및 학습자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학습 이수자에게 자격증이 수여되었습니다.



르완다 Republic of Rwanda



- 인구: 약 1,299만 명
- 1인당 GDP: 748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70.8%
남: 76.15%, 여: 66.14%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르완다위원회
- 사업명: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기초교육 지원사업, 성인문해 강사훈련 및 교재보급 사업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개소 학습자: 215명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게세라 지역의 작은 마을에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를 준공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우루무리 센터에서는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재봉)을 제공하였고, 유아교육에 등록된 학생들에게는 학습 교구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해 강사와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국별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회의를 통해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말라위

Republic of Malawi



- 인구: 약 1,984만 명
- 1인당 GDP: 338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62.14%
남: 69.75%, 여: 55.2%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 사업명: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기초교육 지원사업, 성인문해 교육기획 촉진 사업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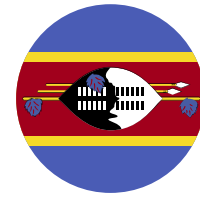
지역학습센터: 3개소 학습자: 949명 교사: 45명 교재 개발: 3건

말라위의 나미양고, 나피니, 웨라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교육 소외계층에게 유아교육, 성인문해, 방과후수업, 직업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웨라 지역학습센터에서는 현대그린푸드의 지원을 받아 급식소를 건립하여 유아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나미양고 센터는 장애가 있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 시설로 특화하여 방과후수업과 직업교육훈련을 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주민이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 말라위 지역학습센터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옥수수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 조리기술 교육을 통한 주민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에스와티니

Kingdom of Eswatini



- 인구: 약 147만 명
- 1인당 GDP: 3,513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83.1%
남: 83.9%, 여: 82.45%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에스와티니위원회
- 사업명: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기초교육 지원사업, 비형식 중등교육 역량강화, 영유아 보육교사 역량강화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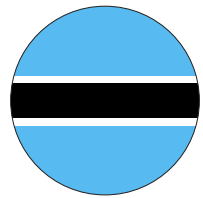
지역학습센터: 3개소 학습자: 114명 교사: 52명

교육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엠홀랑에니, 구게자, 은궁위니 지역학습센터에서 유아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재봉 및 전기배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중등학교 중퇴율이 높아 교육 격차가 심한 현지의 사정에 맞춰, 구게자 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비형식 중등교육을 제공하였고, 재봉 직업교육훈련 자격시험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별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교자재 보급, 교사 역량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Botswana



- 인구: 약 225만 명
- 1인당 GDP: 7,596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87.7%
남: 86.74%, 여: 88.7%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보츠와나위원회
- 사업명: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기초교육 지원사업, [Education 2030] 비형식 역량강화 사업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3개소 학습자: 114명 교사: 38명

보츠와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세 곳은 교육서비스가 제한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오타테 지역학습센터의 경우 지역 내 유일한 교육 시설이기에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에게 중요한 학습 공간입니다.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놀이 시설을 구비했으며, 현재 늘어난 학습자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학습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결부된 학부모의 지식 함양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보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 강사의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잠비아

Republic of Zambia



- 인구: 약 1,644만 명
- 1인당 GDP: 1,509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83.01%
남: 88.68%, 여: 77.75%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 사업명: 지역학습센터를 통한 기초교육 지원사업, 성인문해-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개소 학습자: 211명 교사: 37명 교재 보급: 7,614부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최빈국 잠비아에는 공교육의 혜택이 미치지 못해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마자부카 지역의 성인에게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재봉, 벽돌미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교육 교사에게 성인문해교육 방법론과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제공하여 성인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는 문해 교재를 제작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는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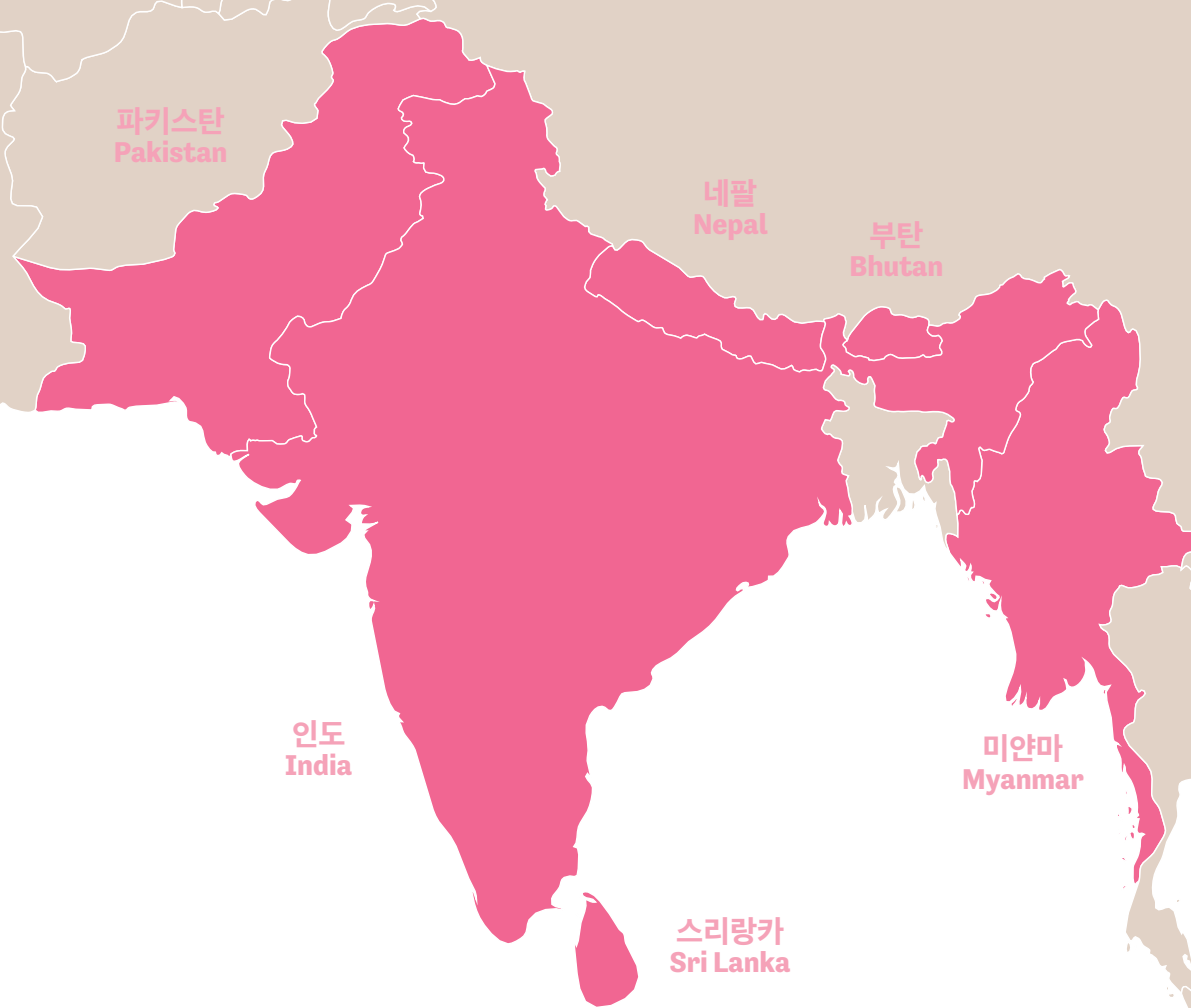
브릿지 아시아 사업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 아시아, 세계 인구 전체의 60% 정도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비문해자' 7억 5천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남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문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각 국가에서 유네스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원회 및 기관, NGO 등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문해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브릿지 아시아 사업대상 국가:

네팔, 미얀마,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 사업 연혁 •

2012	유네스코 세종 프로젝트 &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2013	유네스코 세종 프로젝트 &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2014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개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 (네팔, 파키스탄 및 아시아지역 우수 문해교육 기관 3곳)
2015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베트남,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제 1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제 2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부탄) 사례연구 보고서 발간 (브릿지 인도, 파키스탄 프로젝트)
2017 하반기 ~ 2018 상반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네팔, 미얀마, 부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제 3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2018 하반기~ 2019 상반기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 (네팔, 미얀마, 부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제 4회 협력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대한민국)

사회적 차별을 이겨낼 교육의 힘을 전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에서는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물리적인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부 및 정책에 관여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 종교 등 사회 관습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학습자 (교육 수혜자)
4,132명



교사 역량강화
3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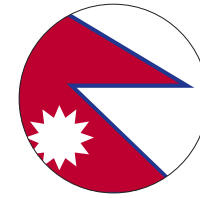
지역학습센터 건축 및 운영
69개소



교재 보급/개발
629부/18건

BRIDGE ASIA

네팔 Nepal



- 인구: 약 2,962만 명
- 1인당 GDP: 918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59.63%
남: 71.71%, 여: 48.84%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네팔위원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명: 2015년 대지진으로 붕괴된 고르카 지역학습센터 재건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개소 건축(공사 중)

네팔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13년 부터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학습센터 건축 및 학용품 제공 등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던 곳입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수많은 학교 붕괴와 함께 지역학습센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2018년에는 고르카 지역 갈촉마을에 지역학습센터를 짓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건축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향후 약 2,000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미얀마 Myanmar



- 인구: 약 5,283만 명
- 1인당 GDP: 1,354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75.55%
남: 80.01%, 여: 71.85%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유네스코방콕사무소, MLRC(미얀마 소재 NGO)
- 사업명: 미얀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4개소 학습자: 28명 교사: 10명 교재: 28부

미얀마에는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약 120만 명에 이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비형식 중학 교육(Non Formal Middle school Education, NFME)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13~16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미얀마어, 영어, 수학, 과학, 직업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미얀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부탄
Bhutan



- 인구: 약 82만 명
- 1인당 GDP: 3,420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57.03%
남: 66%, 여: 48.02%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부탄 교육부
- 사업명: 부탄 비형식교육 강화

<사업성과> 교사: 200명

부탄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산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교육의 손길이 모든 국민에게 닿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브릿지 부탄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들 공교육에서 배제된 성인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문가르, 트라시강 등 5개 지역에서 비형식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교수법 역량 강화 연수를, 지역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지역학습센터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학습센터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문해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도
India



- 인구: 약 13억 5천만 명
- 1인당 GDP: 1,983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69.3%
남: 78.88%, 여: 59.28%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사바기교육센터
- 사업명: 기능문해교육을 통한 소외계층 여성 권한 강화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15개소 학습자: 601명 교사: 15명 교재: 601부

인도의 카이라바드 구역은 인도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19개의 최빈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산업시설의 부재 및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실업과 빈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도로, 수도 및 배수 시스템 등의 공공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탓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인도 프로젝트는 기초문해교육 및 생활기술교육(위생, 건강, 가계부 쓰기, 여성권리 등)을 제공하여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스리랑카
Sri Lanka



- 인구: 약 2,160만 명
- 1인당 GDP: 4,102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91.18%
남: 92.98%, 여: 90.97%
(출처: 외교부,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스리랑카 국립교육원*
- 사업명: 열린학교 프로그램

*스리랑카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열린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문해교육,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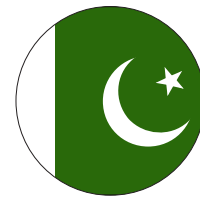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25개소 학습자: 2,183명 교사: 75명 교재: 18건

스리랑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및 종교적 이유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교육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 국립교육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스리랑카 전역 교육소외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공교육 중도탈락자, 장애인, 재소자, 성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문해, 초등 및 중등교육 등을 제공했습니다.



파키스탄
Pakistan



- 인구: 약 2억 4천 9백만 명
- 1인당 GDP: 1,547달러
- 문해율(15세 이상): 56.98%
남: 69.07%, 여: 44.28%
(출처: 외교부, 세계은행, 유네스코통계연구소)
- 협력기관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분야드문해협의회
- 사업명: 기초교육·평생학습을 통한 여성 및 여아 권한 강화

<사업성과>

지역학습센터: 24개소 학습자: 1,320명 교사: 48명

여성 교육을 금기시하는 사회의 관습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파키스탄 여성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의 문해율은 44%에 불과합니다. 또한 8백만에서 1천만 명의 어린이가 교육, 보호,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학대, 착취) 당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굿네이버스, 분야드 문해협의회가 협력하여 파키스탄의 여아, 청소년, 성인 여성의 권한 강화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 지원 사업

전 세계의 문화는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이며, 미래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삶의 지혜가 담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해 인류의 소중한 문화를 계승하고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 공유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인 하나투어와 업무제휴를 통해 2015년부터 꾸준히 세계유산 보호 및 저개발국 유네스코 문화 분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기금 공여

문화 지원 분야 후원금 중 일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 공여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이 기금을 통해 세계유산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공여에 대해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2018.6.24-7.4/바레인)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 개발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라오스 루앙프라방 주민들의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공예 디자인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루앙프라방의 반찬마을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도자기 공예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도예가들이 전통 도예기법을 보존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투어는 물론, 유네스코라오스위원회, 상명대학교와 함께 ‘2018 라오스 공예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의 도자 공예가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가마, 전기물레 등 현대식 도자 기기 활용 방법과 유약 사용법 등 다양한 제작 기술을 함께 전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루앙프라방의 도예가들이 효율적으로 도자 제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제작 기술을 접목하여 도자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 교육은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

‘마침’이 아닌 ‘이어짐’을 위해

말라위 나피니 지역학습센터 내 옥수수 방앗간에는 옥수수를 빻으려는 마을 주민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옥수수 방앗간은 지역학습센터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자 마을 주민들이 시작한 사업으로, 이곳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센터의 책임자이자 마을 촌장인 왈루사(Lyson Walusa) 씨는 “이 방앗간 덕분에 이제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학습센터 운영에도 보탬이 되어 주민들이 매우 기뻐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옥수수 방앗간의 운영위원들이 방앗간의 체계적 운영과 자금 관리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재무관리 워크숍에도 참가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차폴라(Lonny Chapola) 씨는 “재무관리 워크숍에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 활동과 센터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로 옥수수 방앗간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한편, 릴롱웨에 있는 웨라 지역학습센터에서는 2018년 11월 급식소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대그린푸드의 후원을 받아 지어진 이 건물은 유아교실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2015년 레소토에 ‘희망의 급식소’를 신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말라위의 급식소 건립을 지원하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지원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 중인 종합식품기업입니다.



1 나피니 센터의 옥수수 방앗간 전경
2 웨라 센터 조리워크숍



말라위 웨라 지역학습센터 급식소 건축 모습



완공된 말라위 웨라 급식소 전경(2018년 10월)

이 급식소는 지역학습센터 급식소로 이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득창출을 위해 레스토랑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급식 조리 봉사활동을 해오던 마을 주민 다섯 명은 조리 워크숍에도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에서 급식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영양, 위생,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메뉴 개발과 조리 실습도 배웠습니다.

웨라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세굴라(Richard Segula) 씨는 “그간 센터의 급식 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참가자들이 앞으로는 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소득창출 활동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라위의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와 주민들은 이처럼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말라위위원회가 협력하여 진행한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2018년 10월 프로젝트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 전예영 (브릿지아프리카 프로그램 말라위 프로젝트매니저)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를 통해 말라위 나피니와 웨라 지역 주민들은 진정한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

일 년간의 배움을 ‘수확’하던 날

“잠비아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에서는 국가기술자격 2급과 1급 과정 수업이 더욱 체계화되었고, 카퓌에 시에서는 선생님들의 컴퓨터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연말, 잠비아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수업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이 그간 쌓아온 실력을 검증받는 자격증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가네가 지역학습센터(communitry learning center, CLC)에서는 수강생 7명이 벽돌미장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고, 재봉 교실에 참여했던 수강생 10명은 재봉기술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카퓌에 시에서는 브릿지 잠비아 프로젝트가 양성한 문해교사 21명이 ICT 컴퓨터 활용 3급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 해 동안 직업기술교실 수강생들은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에 3일간 진행되는 수업을 들으며 시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성인들이 주 중에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며, 필기와 실기 시험 준비를 병행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사와 학생들은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하다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등 모두가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만큼 시험 당일 수강생들의 모습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카퓌에 시의 문해교사들 또한 ICT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총 4주간 합숙 강의를 들었습니다. 카퓌에 시에서 ICT 3급 국가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강의가 가능한 곳은 카퓌에시의 중심가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차냐냐 마을의 ‘미라클 코너 센터’(Miracle Corner Centre) 한 곳뿐입니다.

외진 마을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숙박시설도 여의치 않아 센터 내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 합숙 교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선생님들 모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셨고, 강의를 통해 ICT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선생님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문해교실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를 비롯한 더 많은 지식을 나눠줌으로써 이곳의 교육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 정여은(잠비아 프로젝트매니저)



1 네가네가 CLC에서 재봉기술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2 카퓌에 시에서 치러진 ICT 컴퓨터 활용 3급 시험에 응시한 문해교사들

“르완다 동부 부게세라 지역의 카부무(Kavumu) 마을의 지역학습센터 건축이 2018년 11월 완공되었습니다. 우루무리(Urumuri) 지역학습센터에는 3개 교실로 이루어진 유아교육동, 성인 문해 및 재봉 수업이 진행될 성인교육동, 그리고 행정동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센터에 필요한 기자재도 구비되었습니다.”

브릿지 르완다 프로젝트

카부무 마을을 비추 ‘희망의 빛’

우루무리 센터를 짓는 동안 이곳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임시 센터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임시 센터에서는 3세 이상 6세 미만 아동 120명이 음악과 현지어, 영어 알파벳, 숫자 교육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시 센터에 세 살배기 막내딸 사뮤엘라(Samuella)를 보내고 있던 알렉상드르(Alexandre Habiyaremye, 39세) 씨는 비록 임시센터이지만, 수업을 통해 사뮤엘라가 알파벳을 배워 영어로 1부터 7까지 셀 수 있게 된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형식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치 못한 르완다에서 이루어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지원 활동은 마을 주민,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는 부게세라 지역 정부와 함께 성인 문해 교사를 훈련, 채용해 우루무리 센터에서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교실이 완공된 이후에는 지역 직업학교와 연계해 재봉 교실을 운영하고,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정부 공인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가 르완다 부게세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지영(르완다 프로젝트매니저)



1 건축 중인 부게세라 카부무 마을의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모습 (2018.4월 당시)
2 완공된 우루무리 지역학습센터 전경(2018.11월)

2018년 신규 후원자 가입 한마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 조민주 후원자님

가능하면 네팔 어린이 학업에 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일재 후원자님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힘써주세요!

— 정새봄 후원자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전세계 유네스코 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 나웅 후원자님

유네스코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그리고 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후원금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윤지 후원자님

유네스코 현장에 공감합니다.

— 감도경 후원자님

부디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합니다.

— 최경선 후원자님

사범대생으로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후원사업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 문성욱 후원자님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지에서 비롯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 신대현 후원자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 오승호 후원자님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요.

— 김은숙 후원자님

제 후원금이 투명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좋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근영 후원자님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수 후원자님

유네스코한위의 성장과 우리나라가 교육과 과학, 문화로 번영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명수 후원자님

교육사업에 좋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장지원 후원자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 이준영 후원자님

어려운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함영남 후원자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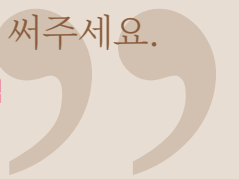
— 정지수 후원자님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랍니다.

— 서현민 후원자님

나의 기부가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기부현황을 받아볼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투명하게 써주세요.

— 안성은 후원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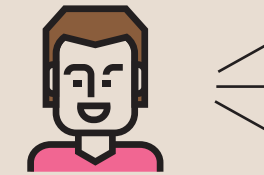
2018 후원자의 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2018년 한 해 지구촌 교육 나눔 사업에 동참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8 유네스코 후원자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사진과 영상, 나눔 캠페인 등으로 참석자들에게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난타' 공연장으로 이동,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흥겨운 공연을 보며 연말연시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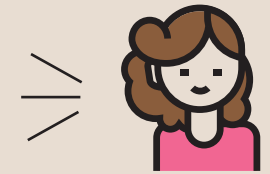
후원자의 밤 참가 메세지



손현승 후원자님

‘여자는 어차피 결혼을 할 사람이니까 공부에 투자하는 것은 사치다’라는 인식을 가진 어른들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결혼조차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2018년 유네스코 후원자의 밤에서 느낀 따뜻함이 오래 남아 모두가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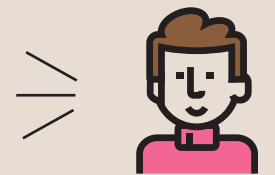
박현주 후원자님



이민옥 후원자님

유네스코 키즈 멘토로 활동하고, 다시 후원자로 유네스코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유네스코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몇 년 전 인도에서 만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며 살아가던 아이들이 떠올라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쁩니다.



김대왕 후원자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자주 하시는 질문

Q.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의 나눔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유네스코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구호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헌장」 제7조와 대한민국 특별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육 소외 지역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고 있나요? 모집경비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A.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후원금 모집과 사용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내·외부의 회계감사를 시행합니다. 웹사이트,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서 후원금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87%는 사업비로 쓰이며, 모집경비는 13%로 시민과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활동과 모금 참여를 위한 국내 캠페인 추진 및 유네스코 활동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비로 씁니다.

Q.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국 사람들을 도와야 하나요?

A. 유네스코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충돌과 갈등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며, 평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개개인 모두가 빈곤, 기아, 전쟁 등 지구촌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제가 보내는 후원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A. 후원자님께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1만 원을 후원하시면, 아프리카의 교육 지원을 위해 5,829원이, 아시아 지역 교육 후원사업에 2,871원이, 나머지 1,300원은 모집비용으로 배분되며, 후원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육 사각지대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 학습센터를 짓고, 글을 모르는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르치고, 다양한 교재를 만듭니다. 또한 좋은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사 연수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친구들에게 직접 책과 학용품을 보내줄 순 없을까요?

A. 공부를 위한 학생들의 필수품인 책과 학용품의 질은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직접 보내면 통관을 위한 관세와 배송비가 물품비보다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후원해주시기보다는 후원금을 통해 그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또는 구입) 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편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네스코 헌장 제정일 1945. 11. 16. / 발효일 1946. 11. 4.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 원조와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17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유엔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 등 인도적 과제에 초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고 전 세계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표1	빈곤 퇴치	지구 상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한다.
목표2	기아 종식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안보를 달성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목표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대의 모든 이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목표4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목표5	성평등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가 깨끗한 물과 위생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7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모두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하며,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장려한다.
목표10	불평등 감소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줄인다.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도시 및 인간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든다.
목표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을 보장한다.
목표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를 취한다.
목표14	수생태계 보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대양/바다/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며,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막는다.
목표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 모두가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목표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20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구촌 교육나눔 연차보고서

펴낸날 2019년 8월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편집 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팀
디자인 진민선 jinminseon.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peace.unesco.or.kr
전자우편 peace@unesco.or.kr

후원문의 1800-9971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86-001117
국민은행 375301-04-106542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넬슨 만델라 -

이 보고서는 친환경 재생지로 제작되었습니다.

간행물등록번호: ED 2019 RP 6